

# 괘·사이판 노선 재개 했지만... 에어로케이 '길건너 불구경'

3년간 청주공항 거점 유지 의무에  
지난 한달간 탑승률 31.4% 불과  
국제선 취항지 '대만·일본' 한정  
이외지역 취항시 국토부 허가 필요



에어로케이항공 항공기.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항공이 트래블 버블을 통한 괘, 사이판 등 국제선 재개 조짐에도 웃지 못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로케이항공은 현재 청주-제주 단일 노선으로 국내선만을 운항하고 있다. 지난 4월 항공업계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여전히 해당 노선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확산한 코로나 여파로 수요가 대폭 감소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에어로케이는 앞서 2019년 3월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국토부로부터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

았던 ULCC(초저비용 항공사)다. 이후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AOC(항공운항 증명)를 신청했고, 약 1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운항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에어로케이는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면서 조건으로 3년간 거점 공항 유지 의무를 지게 됐다. 해당 기간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노선만 운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대비 지역 공항 특성상 이용객이 적어 에어로케이에는 수익성 측면에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예상치 못한 코로나 여파까지 겹쳐 첫 노선 취항 이후에도 탑승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국토부 항공 포털에 따르면 에어로케이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350편을 운항했다. 이 기간 탑승객은 1만9774명이었다. 에어로케이 항공기는 최대 탑승 인원이 180명으로 한 달간 평균 탑승률은 31.4%에 그쳤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트래블 버블을 통한 국제선 재개도 에어로케이의 경영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르면 7월부터 트래블 버블(여행 안전 권역)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국가가 괘와 사이판 등이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 부문에서 상호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에 격리를 면제해 일반 여행 목적의 국제 이동을 재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방역 신뢰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합의한 후 방역 당국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에어로케이는 사실상 운항하기가 쉽지 않다. 에어로케이는 당초 국토부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국제선 첫 취항지로 대만, 일본 등을 적어놨기 때문이다. 에어로케이가 이외 지역에 먼저 취항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수정해 국토부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에어로케이가 국제선 재개 조짐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다.

한편 에어프레미아는 외려 국토부의 혜택 논란에 휩싸였다.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3년간 거점 공항 유지 의무를 받았던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와 달리 에어프레미아는 당초 해당 의무를 받지 않았다고 국토부가 뒤늦게 해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3사 모두 거점 공항 유지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작성됐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거점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선을 첫 노선으로 취항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김포-제주 국내선에 첫 항공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무더위·장마 의류케어, 걱정 마세요”

삼성, 비스포크 슈드레서 출시 등  
‘의류케어 가전’ 3총사 출격 완료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가 다가오는 상황, 마침 삼성전자의 의류케어 가전이 완성되면서 소비자 관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달 비스포크 슈드레서를 출시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슈드레서는 에어드레서 기술을 이용해 신발까지 손쉽게 케어해주는 제품으로, 버튼 한번으로 건조와 탈취, 살균 등을 해준다. 전용 액세서리 제트슈트리와 강력한 바람 에어워시, UV 냄새분해 필터 등이 힘을 합친다. 바람 온도가 40도 이하로 신발을 해치지 않는다. 저온 섬세 건조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한 덕분에 국내 가전 최초로 제는 UVC 램프도 적용해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준다.

동시에 3컬러를 관리할 수 있다. 구성원이 많거나, 다양한 신발을 한 번에 관리받는 것도 가능하다. 컬러도 비스포크 답게 4가지로 고를 수 있어 인테리

어에 용이하다.

에어드레서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강력한 바람을 내뿜는 ‘에어워시’와 스팀, UV 냄새분해 필터로 땀에 젖거나 비를 맞은 옷도 굳이 빨지 않고 새것처럼 입을 수 있다. 건조와 구김 제거 기능도 있어 관리하기도 쉽다.

건조 코스는 9개에 달한다. 아웃도어 의류와 피트니스 의류, 수영복까지도 소재 변형 우려 없이 사용하면 된다.

에어드레서는 옷뿐 아니라 공간 습도까지 관리해준다. 바로 ‘공간 제습’ 기능. 설치된 공간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줘, 장마철 눅눅한 드레스룸을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9가지 다양한 패넬로 출시돼 인테리어에도 효과적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랑데 AI 세탁기와 건조기가 인기다. AI맞춤 세탁 기능으로 옷감 종류와 오염도에 따라 스스로 코스와 옵션을 제안, 이불 등 무거운 세탁물을 감지하면 ‘워터샷’으로 더 강력한 세탁력을 낼 수 있다. /김재용 기자 juk@

## 한화디펜스, ESS 패키징 기술 국산화 시동

에너지기술평가원과 기술개발 협약  
3년간 시험평가·선급인증 등 진행

국내 방산기업 한화디펜스가 친환경 선박용 고안전성 에너지저장장치(ESS) 패키징 기술 국산화에 나선다.

한화디펜스는 지난 22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선박용 고안전성 ESS 패키징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과제는 MWh급 선박에 탑재되는 고안전성 ESS를 100% 국내 개발하는 것으로, 향후 3년간 중대형 선박용(1MWh급)과 소형선박용(200kWh급)에 탑재되는 ESS 개발을 비롯해 시험평가와 선급인증 및 실선 탑재, 안전성 입증시험 등이 진행된다.

연구개발 주관 기업으로 선정된 한화디펜스는 앞으로 ▲열전이 확산 방지 ▲모듈단위 화재진압 ▲해상 환경용 최적 설계 ▲경량화·소형화 시스템 엔지니어링 ▲ESS 안전 제어 ▲고안전성 시험·승인 절차 구축 등 6대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한국전기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



한화디펜스와 선박용 고안전성 에너지저장장치 공동 연구개발을 할 컨소시엄 13개 기관 및 회사들이 지난 23일 한화디펜스 판교 R&D 센터에서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자체 조정회의를 실시했다. /한화디펜스

관은 물론, 상선 분야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KTE와 일렉트릭, 해민중공업 등 국내 유수의 조선 관련 업체들과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한국형 친환경 선박용 ESS’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한화디펜스는 해군 차세대 중형 잠수함용 리튬이온전지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해상용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지난 2019년부터 국가 관공선 등에 들어가는 선박용 ESS를 자체 개발해 왔다.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잠수함용 배터

리팩은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자랑한다. 혹시 모를 해상 배터리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첨단 안전성 설계가 이뤄졌으며, 가혹한 시험 환경에서 ▲과충전·방전 ▲외부 단락 ▲열노출 ▲압력 ▲연소 ▲염수 침수 등에 대한 성능 입증시험을 세계 최초로 수행, 전 항목을 만족시켰다.

여기에 에너지기술평가원 국책 과제 수행을 통해 해상용 에너지저장장치의 화재 안전성 기술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제품의 표준화를 선도해 국내외 친환경 선박 시장 본격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 SK이노, 폐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

SK종합화학 등 4자 협의체, MOU

SK이노베이션, SK종합화학, 한국도로공사,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등 4자 협의체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배출부터 업사이클까지 아우르는 폐플라스틱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SK이노베이션 등 4자 협의체는 24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일평균 약 4톤을 자원순환에 활용하고, 국민들의 플라스틱 분리배출 인식 제고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

회 정승환 회장,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 SK종합화학 이종혁 그린비즈니스그룹 담당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이 협의체는 ▲자원순환을 위한 폐플라스틱 분리배출 캠페인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사업 ▲친환경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육성과 같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정승환 회장은 “이번 자원순환 협력을 계기로 대한민국 고속도로 휴게시설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 LG 시그니처, 유럽 프리미엄 가구와 작품展

논현 쇼룸서 내달 17일까지 전시

LG전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가 유럽 프리미엄 가구와 다시 한번 만났다. LG전자는 24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논현 쇼룸에서 비엔비 이탈리아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초프리미엄 선호 고객을 위해 혁신적인 디자인과 성능을 선보여왔다. 이번 전시에는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제품과 비엔비 이탈리아의 대표 디

자이너 마리오 벨리니, 안토니오 치테리오, 가에타노 페세의 작품으로 조합했다.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는 쇼룸 1층과 3층에 비엔비 이탈리아 작품을 함께 전시했다. 1층에는 블릿츠 테이블, 1인용 소파 세리업 등 디자이너의 철학이 담긴 작품을 선보이고, 3층에는 모듈형 소파인 카멜레온다 등을 갖춘 전시존도 마련했다. 특히 블릿츠 테이블은 마리오 벨리니의 신제품으로 전세계 100개 한정 판매된다. /김재용 기자

## 티웨이항공 소방관가족 할인 확대

티웨이항공은 전현직 소방관 가족까지 할인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소방공무원과 소방동우회에 가입된 퇴직 소방관 본인에게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상시 제공해왔다.

먼저 소방관에게는 국내선 대상 비수기 25%, 주말과 성수기 10%, 국제선은 비수기 7%의 할인율을 제공한다. 할인 적용을 위해 항공권 예약 시 탑승자 정보 입력 과정에서 개인 신분 할인을 ‘소방공무원’으로 선택하면 된다. /김수지 기자